

투데이 칼럼

상호 존중속에 성장해가는 열린 민원행정

겨우내 쌓였던 추위를 녹이려는 듯 소소히 봄비가 내리는 어느날 오전 민원실에 작은 소란이 있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가장 무서워하거나 싫어한다는 바로 그 민원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민원실에서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소소한 풍경이지만 그럴 때 마다 느끼는 것은 다양하게 변화해가는 민원행정의 패러다임을 공인이든 사인이든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이 아닌 상호 협력자 또는 조력자로서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하변 어떻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과거 시대에는 백성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문고, 상소문 또는 암행어사 제도나 순문 등의 여러 가지 민의수렴 제도를 통해 행정이 백성들 속으로 깊숙이 다가 그들의 자유와 권



장 종현 장수군청민원과장

리를 보장했던 제도와 문화가 있었다. 현대에도 행정의 적극적인 열린행정으로 다양한 고충이나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신청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앱' 등과 같은 소통창구가 주민들의 편리한 행정업무를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제도와 문

화가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장수군의 민원창구는 '여권발급교부', '팩스민원처리',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발급', '민원접수 및 안내', '행정정보공개', '지적·토지대장 등본 발급', '지적 측량접수 처리', '부동산 실거래신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지방세 취득등록세·면허세 부과 발급', '자동차이전등록·과태료 부과' 등을 운영하

고 있다. 특히, 군은 군정지표인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장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민원행정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기에 제도만 갖출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이 상호 소통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호 존중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과 서비스, 갑과 을의 관계 보다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호혜와 환대, 배려, 우정이 율트는 관계를 만들어보자. 그 관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대로 된 공공성이 꽃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일하고 있는 민원실에서부터 상호존중하며 성장해 가는 열린 행정을 통하여 변화하는 민원행정을 발전하고 민과 군 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독자제언

교통법규를 잘 지키자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 위험을 줄이고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교통법규가 있다. 가장 먼저 피로불기을 하지 말아야 한다. 피로물기란 이미 신호가 바뀌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앞차를 쫓아 교차로를 건너가는 행위를 말한다. 신호대기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 결과 다른 차들의 주행시간을 뺏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신호체계는 무너지게 된다. 두 번째 제한속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작게 날 사고도 크게 난다. 운전 중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므로 제한속도를 지켜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요즘 도로 위의 차들은 앞차에 필승겨 놓기라도 했는지 앞차와 붙어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서로의 안전운전을 위해 조금씩 거리를 두어야 한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운전자의 성격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기본을 무시하는데서 문제의 출발이 있는 것이다. 운전문화라는 용어가 있다. 선진국일수록 운전문화가 발달해 있다. 운전문화의 본질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남을 배려하는 관념일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운전문화와 법규를 지키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쾌적한 교통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철호원산경찰서 청문감사민원실 경위

독자제언

사람이 먼저, 화물차량 교통법규 준수가 절실

작년 경남 창원터널 앞 노상에서 적제함에 있던 기름통이 떨어져 화제가 발생해 운전자 등 3명이 사망하는 등 화물차량 적재물 교통법규 위반 행위만 서로의 안전운전을 위해 조금씩 거리를 두어야 한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운전자의 성격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기본을 무시하는데서 문제의 출발이 있는 것이다. 운전문화라는 용어가 있다. 선진국일수록 운전문화가 발달해 있다. 운전문화의 본질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남을 배려하는 관념일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운전문화와 법규를 지키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쾌적한 교통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철호원산경찰서 청문감사민원실 경위

히 법규에 따라야 한다. 적제초과차량은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후면에 기재된 적제중량에 따라야 하며, 적제중량 초과가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39조 1항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적제불량 위반사례로는 편중적재, 덩게 끼우지 않고 운행, 결속상태 불량, 액체 적재물 반류, 견인시 파손품 유포, 기타 적재물 낙하 우려 차량이 해당되며 이 역시도 도로교통법 39조 4항에 따라 범칙금 대상이다. 사람중심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운전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위협적인 대상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안전한 운전자라는 인식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법규준수 의식이 요구된다. 신서윤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설

새만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새만금의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을 위한 개발이 투자되며 인센티브가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수준에 그치고 있는 까닭이다. 법과 제도가 수시로 바뀌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이 있다는 불만도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정돈된 마련이 있어야겠다. 전북도는 이같은 말을 새겨 들어야 한다. 최근에 새만금의 미래와 관련한 정부의 청사진 발표로 들뜬 감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만족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시키는 움직임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전략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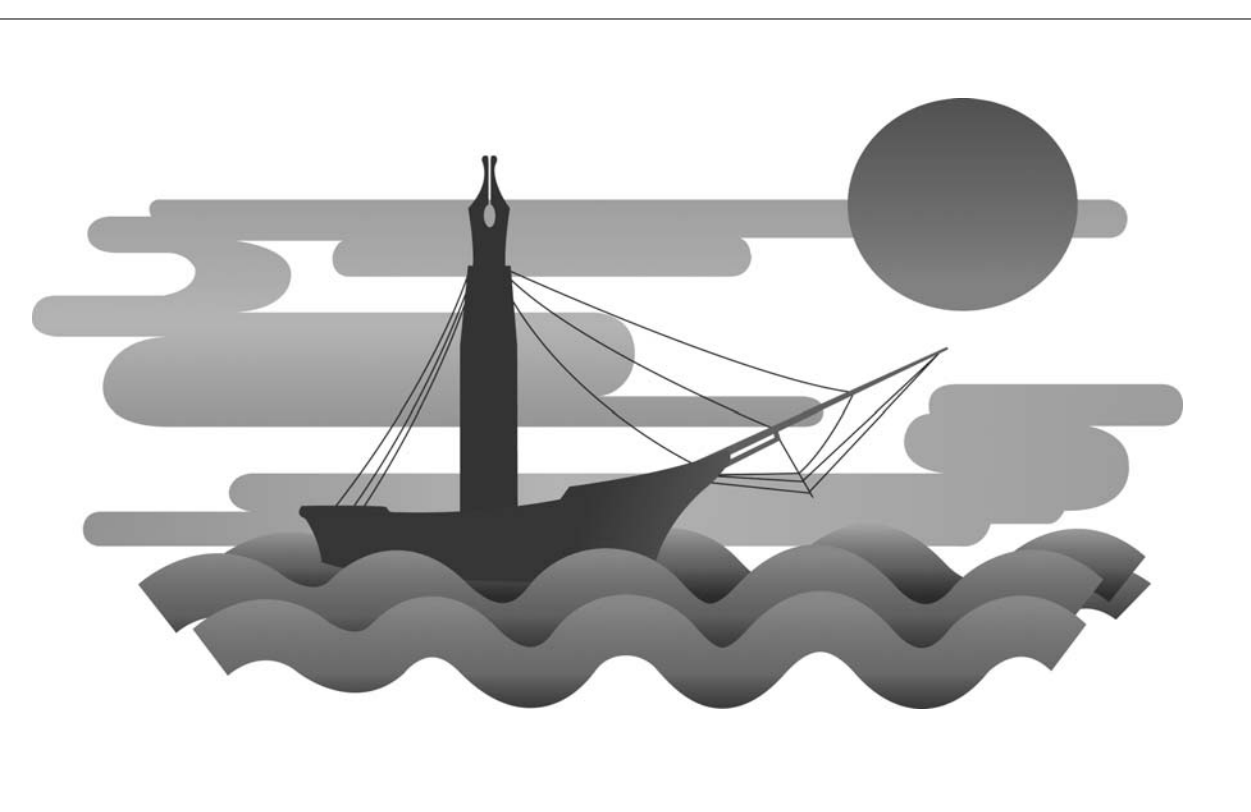
역 현안 중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새만금이다. 전북도는 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뭔지 알아보는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그런데 예상대로 새만금이 발전핵심과제 1위에 올랐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새만금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겠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새만금 사업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도민 대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도민의 의사를 힘차게 대변해야 한다. 그동안 전북도는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장차 아리울이라는 대도시로 키우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 도민들이 새만금에 기대하는 것은 크다.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의 규모를 꾸준히 키워나가는 중에 일반 투자자들을 생각해 법과 제도도 견고하게 해야 한다. 새만금 발전 현안과 관련해 두루 살피고 행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려면 전북도가 활발하게 앞서 나가야 한다. 일이 터져야 한다고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도민들은 전북도에 기대하는 것이 많다. 기대에 부응해 새만금의 길 계속 열어 달라는 당부이다.

정부에 지역 균형발전을 말해야

정부를 상대로 지역 균형발전을 말해야겠다. 그것도 강하고 힘차게 말해야겠다. 지금 왜 이런 주제를 하나냐면 청와대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에 신경이 쓰이는 오늘이다. 균형 발전이 없는 지방 분권은 전북도민의 입장에서 좀 그렇다. 교통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게 뻔하니 말이다.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계속될 터이다. 우리 전북 지역 발전 현안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것도 짚어보아야 할 일이다. 발전을 약속한 사업들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역대 정부가 예산 편성에 인색한 탓이 컸다고 해도 이대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매번 같은 말을 되뇌여서는 안 된다. 교정의 오랜 낙후는 도민의 정서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도내에 유명무실한 사업들이 적지 않다. 말로만 현안사업이지 정체인 사업들이 아닐 수 없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이 저러니 다른 사업들이야 오죽하랴.

전북도의 청사진대로라면 진척에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들이 아직도 터럭거리리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전북도의 관계자들은 못 마땅해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이 지적이 아주 틀린 게 아님은 분명하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지만 거북이 움직인다. 그런 까닭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 한참 낙후돼 있다. 발전의 보폭이라는 게 다른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 미미하다. 전북의 오늘을 지난 사오 년 전과 비교해도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전북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현안사업의 힘찬 추진을 위해서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겠다. 전북도는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것들 투성이다. 발전 보폭이 마음에 안든다고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상체를 내밀고 앞으로 매진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을 생각해 다른 지자체보다 힘차게 달려야 한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